

셀 모임 순서지 (2022년 1월 셋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요즘 나의 생활은 ...

- ☞ 어떻게 이런일이 내게? 이해 안되는 일...
- ☞ 내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멋진일 없을 것
- ☞ 혼자만 간직하고 있기엔 너무나 좋은 일
- ☞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김
- ☞ 사소한 일이었지만 좋은 교훈될 일
- ☞ 열받는 일, 후회되는 일 등

Worship - 찬양

📖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안전하신 나의 주”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 하나님과 동행하라. (창세기 5장 18~29절)



‘동행’(함께 걷다, 함께 산책하다, 함께 행동하다)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13:20)
우리 인생에 최고의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 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특징입니다!

- 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동행했습니다.
- ② 그의 인생이 마쳐질 때까지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 ③ 죽음을 초월한 동행이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에녹은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육십오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5:21-22)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자는 내가 오늘 죽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십니까? 매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경건치 못하고 불법적인 문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교만한 살인자며 일부다쳐주의 자인 라멕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을 향해 소리 높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예언을 하며 살았던 이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11:5-6)

에녹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에녹은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해도 큰 산을 움직일 만한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에 포함됩니다.

에녹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만 했습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됩니다.

그렇게 산다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용

- 1) 하나님과 동행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떻게 있을까요?
- 2)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영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리더세미나'(6주간), '임직자교육'(8주간) _ 배우고 익히며 섬김의 본이 되게끔 은혜 허락하소서.
2. '교회 리모델링'에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3.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새해 표어처럼,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동일 499)

저 장미꽃 위에 이슬

442

주와 동행

C. A. Miles, 1912

보통으로

I come to the garden alone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요 20:18)

IN THE GARDEN: 8.9.10.7.REF.

C. A. Miles, 1912

1.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 때에
 2.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3. 밤 깊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이 날 귀에 쟁쟁하다
 피곤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후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의의-길로 날-인도 하소서-

행하신-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다 -예배함-니다

-찬양함-니다 -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함-니다

- 찬양함-니다 - 주님 흠-로 높임 받으소서 -